



‘가라지 와인의 선두주자! 괴짜 천재 뛰스방의 와인’

배드 보이

Bad Boy

지역	프랑스 > 보르도		
포도품종	메를로 80% 까베르네 프랑 10% 까베르네 소비뇽 5% 쁘띠 베르도 5%		
알코올	13.5%	용량	750ml
등급	Vin de France	시음 적정 온도	15-18℃
테이스팅 노트	강렬한 보라빛이 감도는 레드 컬러로 까시스, 블루 베리와 같은 검은 과일향과 스모키한 오크향의 조화롭다. 잘 숙성된 탄닌감이 진한 과일 풍미와 어우러져 마지막까지 긴 여운을 선사하는 풀바디 와인이다.		



제품설명



장 뢰 뛰스방이 자신의 애칭으로 만든 최고의 와인은 그 자신에 대한 오마주 와인으로 보르도 와인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로버트 파커가 배드 보이로 부르며 최고의 찬사를 아끼지 않은 와인이기도 하다. 특히 레이블로 형상화된 검은 양 캐릭터와 Garage(차고)라는 말처럼 자신의 특급와인 샤토 발랑드로와 함께 장 뢰 뛰스방의 양조철학과 열정을 엿볼 수 있다. 포도나무의 평균수령은 약 50년 정도된 와인으로 더욱 깊이 있는 와인의 풍미를 느낄 수 있으며, 2014 빈티지는 오직 85,000병만 생산되었다. 프랑스산 오크통에서 약 18개월 동안 숙성 진행되었다.

수상내역



2016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3점
2016빈티지 로버트 파커 Robert Parker 90점
2016빈티지 와인 스펙테이터 Wine Spectator 89점

와이너리



1989년, 뛰스방의 와인메이커 ‘장 뢰 뛰스방’은 13년 동안 은행원으로 일하다 생페밀리옹 지역 0.6ha의 빈야드를 인수하여 1991 빈티지 샤토 발랑드로를 출시하며 뛰스방 와이너리의 역사를 시작한다. 보르도의 전통적인 양조방식에서 벗어나, 리(Lees)와 함께 숙성하는 부르고뉴 형식의 양조방식을 접목하는 등, 독창적 형태로 만들어내는 그의 보르도 와인들은 ‘가라지 와인’으로 불리며 큰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키게 되고, 세계적인 와인 평론가 로버트 파커 또한, ‘관습에서 벗어나 독창적인 방식으로 성공한 고집스런 괴짜이자 천재’라는 의미로써 장 뢰 뛰스방을 ‘배드 보이(Bad Boy)’라 칭하며 그의 열정과 능력을 극찬하게 된다. 또한 와인메이커의 역량이 강조되는 ‘가라지 와인’ 카테고리의 선두주자로서, 많은 와이너리들의 컨설턴트도 겸임하고 있는 뛰스방은 현재 그랑크뤼 클라세 1등급 B에 선정된 ‘샤토 발랑드로’를 비롯, 대중적 브랜드 ‘배드 보이’, 남프랑스 와인 ‘뛰스방 갈베’ 레인지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선보이고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누워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